

# “담양 산타마을서 크리스마스 추억 남겨요”



여기가 핫플 ‘담양 산타축제’

담양 메타랜드 일원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기득한 ‘산타 마을’로 탈바꿈한다.

담양군은 매년 크리스마스 기간 ‘산타’를 주제로 ‘담양산타 축제’를 개최. 연말 분위기가 넘치는 공간을 조성해 가족, 연인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지난해에도 담양을 찾은 8만여 관광객에게 특별한 겨울 경험을 선사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축제는 12월 24~25일 개최된다.

올해는 축제 장소를 담양읍 중앙로 일원에서 메타랜드로 옮겨 ‘우린 누군가의 산타!’란 슬로건 아래 관광객을 맞는다.

축제의 백미는 야간경관이다.

12월 24일 메타랜드 기후변화체험관(주무대) 앞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LED 구슬과 선물상자를 활용한 점등식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퍼포먼스 이후에는 개막을 축하하는 폭죽 행사도 마련돼 환하게 빛나는 겨울밤을 만끽할 수 있다.

축제장도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물든다.

메타세퀴아 가로수길 입구인 흥실문부터 기후변화체험관 구간이 대형 별 조명으로 빛나며 동심을 자극한다. 기다랗게 늘어진 메타세퀴아 길에는 가로수를 활용한 야간 조명이 설치돼 밤하늘을 빛낸다.

메타프로방스 입구에는 대형 트리와 눈사람 조형물을 설치해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한다.

조명을 활용한 산타 조형물, 산타 모형의 애드벌룬 등으로 꾸며진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돼 추억을 담아갈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가족, 연인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가족, 연인과 함께 화로에 둘러앉아 마시멜로, 옥수수 등을 구워 먹으며 크리스마스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산타 그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또 산타 LED 조명등 만들기, LED 키링 만들기, 크리스마스 머리띠 만들기가 진행된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24~25일 메타랜드 일원서 ‘제7회 담양산타축제’ 개최

트리·눈사람 활용 야간경관부터 이색 포토존까지 풍성

그릴 하우스·조명 만들기·미니게임 등 체험거리 가득

▶ 산타로 변신한 축제 관계자들이 담양산타축제가 열린 담양읍 중앙로 일원 ‘차 없는 산타거리’를 행진하며 방문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축제의 주제인 ‘담양산타와 함께하는 일곱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에 맞춰 산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풍성하게 준비된다.

메타프로방스와 메타세퀴아길 일원에서 운영되며, 방문객은 산타와 함께 미니게임, 포토타임을 즐길 수 있다. 이벤트 참여 관광객에는 기념품이 증정돼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인기 가수들의 풍성한 공연도 마련된다.

축제 첫날인 24일에는 임창정과 왁스가 무대에 올라 겨울밤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또 EDM 공연도 준비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띠운다.

둘째 날에는 지역 예술인 공연과 노이즈, 손빈, 철희 등 트로트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산타축제를 준비한 담양군은 이번 행사를 지역 상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으로 꾸민다.

축제가 열리는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권을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축제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지난해 담양산타축제가 열린 담양읍 중앙로 일원 ‘차 없는 산타거리’에서 음악연주단이 행진을 펼치고 있다.